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 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 | 발행일 2013년 6월 15일 | 총권 30호 | 주소 서울 마포구 성산동 256-13 2층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동화작가 권정생 6주기를 맞이하여

올해는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이 세상 여행을 마친지 여섯 해가 되는 때입니다. 가르치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6주기 추모식을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유품을 전시한 권정생 문화재단에는 여전히 선생님 생전에 남겨놓은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몸을 낱알이 감아먹는 병균과 사투를 벌인 흔적 인 의료도구들, 낡은 고무신과 털신 한 켤레,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모나미 볼펜, 그리고 몽당연필 꾸러미, 낡은 비료포대로 만든 부채 하나, 꼬질꼬질 때문은 수첩들 무엇하나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사진 속에서 선생님은 아름다운 청년 시절도 있었고, 동무 할아버지들과 즐거운 한때도 있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뽕떡이도 있었습니다. 좁디 좁은 방에서 온 세상에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 주셨던 선생님이 환히 웃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남겨놓은 책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책들이 우리들 마음에 전해오는 깊은 울림을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싱그러운 오월입니다. 선생님 댁 마당에는 질경이가, 토끼풀이 초록빛으로 되살아나 방문객들에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생전 선생님 손이 닿았을 나무들이 싱그럽게 커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앉아서 세상의 수많은 아이들을 생각했을 너럭바위도 그대로 있습니다. 수없이 오고갔을 낡은 뒷간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빌뱅이 언덕에 오르니 아직도 선생님의 하얀 뺨 조각들이 보입니다. 빌뱅이 언덕에서 바라보는 너른 들판에는 예전처럼 사과나무는 줄어들고 있지만 <한티재 하늘>이나, <초가집이 있던 마을>이나 <몽실언니> 배경이라는군요.

선생님은 늘 이곳 빌뱅이 언덕에 올라 온갖 수난을 겪으며 질경이처럼 곳곳하게 살아온 우리 겨레 어머니들, 언니들의 삶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겠지요. 선생님 집 앞 마당에서는 추모식이 열리는데 마당에서 좀 떨어진 냇가 독에 권정생 선생님과 꼭 닮은 할아버지가 먼 들판을 바라보며 혼자 서 있습니다. 다가가 보니 권정생 선생님과 꼭 닮은 동생 '권 정' 할아버지였습니다.

"권정생 선생님 많이 생각나시죠?" 하니 "하이고 말도 마세요." 하며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생전에 어머니 생각을 참 많이 했다'며 말을 잊지 못하는 모습에서 형에 대한 진한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남겨놓은 동화로 선생님을 기억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 동화는 우리가 사람답게 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건 작건,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큰집에서 살건 작은 집에서 살건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프리카 아이들도, 북한 아이들도, 남한 아이들도 모두가 동무가 되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없애야 한다는 거, 조금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 꼭 필요한 만큼만 갖고 욕심내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 그래야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이 평등하게 살게 되고, 그래야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선생님은 생전에 동화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했지만 지금 아이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을 밟고서라도 1등을 해야 하는 세상이니까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하니까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정신을 살려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공부를 하는 이유이니까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학교, 또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다면 '권정생 선생님 동화 읽는날', 혹은 '권정생 선생님 만나는 날', 혹은 '권정생의 날' 등을 정해서 그날은 온전히 권정생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동화도 읽어주고, 원화전도 하고, 책 전시회도 하고, 권정생 시로 노래 만들기 대회도 열고, 낭송회도 열면 어떨까요? 선생님 유품 전시관에 가면 작은 나무판에 '한편의 좋은 동화는 천 번의 설교보다 낫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선생님 동화에서 좋은 문구를 찾아서 나무판에 새겨보는 활동은 또 어떨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동화작가를 국가적으로 예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한국의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을 기억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기회들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 도서관 사서들, 어머니들, 할머니들, 아버지들, 청년들 누구라도 권정생 동화를 읽고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월례 | 어린이도서비평가,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공동대표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숙명여고 교사 독서동호회 <맛있는 책읽기>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김옥주 / 김선영 / 이근자 / 김연일
08_ 학도넷 소식
<p>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p> <p>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p> <p>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p> <p>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시오. www.hakdo.net</p>
<p>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p> <p>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p>

초롱초롱하고 은은한,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인천초은고 학교도서관

-이성희 (인천초은고등학교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인천초은고등학교는 인천의 신도시인 청라지역에 위치한 학교다. 2011년 개교했으니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든다. 학교 주변은 아직도 공사 중이고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해 학생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다.

인천초은고등학교 도서관은 2011년 가을에 만들어 졌는데 교실 4칸의 넓은 공간에 수업 공간, 정보 활용 공간, 서가 공간, 모듬토의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활용되고 있다.

인천초은고등학교 도서관은 초롱초롱하고 은은하다는 학교 이름처럼 학교의 독서문화를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공간이다.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책을 읽기도 하고, 수업을 하며, 때로는 즐거운 놀이를 펼치기도 한다.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장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서로 어우러지며 하나가 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친구와 친구가, 후배와 선배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척 다양하다. 다양한 행사를 펼치는 과정에서 학교도서관은 즐거운 독서의 장으로, 가슴 벅찬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다.

내 인생의 멘토를 만나다!

일생동안 저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아마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한다. 저자와의 만남은 아이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에게 그 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저자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한다.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저자가 탄생한다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인천초은고등학교 도서관에서는 '내 인생의 멘토를 만

나다' 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분야의 저자들을 모시고 있다. 소설가 성석제, 문화인류학자 이희수, 건축가 이일훈, 영화감독 장항준, 프로듀서 이춘근, 요리사 김희태, 스토어디스 박지선, 시인 함민복, 재미있는 공룡이야기의 송용진, 제주올레 이사장 서명숙, 탐구한다는 것의 저자 과학자 남창훈, 기충생 박사 서민 등.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인천초은고등학교에 오셨던 저자들이다. 지난 일 년 동안 열두 분의 저자가 오셨으니 매달 한 분씩 온 셈이다. 아이들은 열 두 빛깔의 저자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 아이들은 스폰지 같다. 온전히 자신을 내맡긴다. 아이들의 재잘거림 속에 그들의 꿈은 무럭무럭 자라난다.

책, 그리고 문화를 만나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며 새로운 삶의 의욕을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이 학습 공간이기도 하지만 문화 공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딱히 청소년 문화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지금, 학교도서관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곳이 될 수 있다. 학교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들만의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인천초은고등학교 도서관은 단순한 독서공간이 아니라 문화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파주 독서문화기행, 가을에 떠나는 군산 근대역사 문화기행, 도서관과 함께하는 서울문화기행, 근대개항장과 함께 떠나는 인천문화기행, 김유정 문학촌 문화기행, 함민복 시인과 함께 하는 시낭송 콘서트, 2012 책의노래 '서울' 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 등 인천초은고등학교 도서관이 지난 1년 동안 걸었던 자취이다.

책이 문화를 만났을 때 행복한 책 읽기는 더욱 가까워진다.

책, 세상을 만나다!

책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책 읽기가 개

인적인 활동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도구가 된다면 이보다 더 뜻 깊은 것은 없을 것이다.

인천초은고등학교 도서관에서는 2012년 '책으로 만나는 도시문화 프로젝트' 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활동을 했다. 수도권 지역의 독서문화를 만들어 가는 북카페를 탐방한 후 관련 블로그를 만들고 운영하는 활동이다. 2013년에는 '청라를 걷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다'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길은 만남이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고 자연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다.

인천초은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라에 올레길을 내고자 한다. 제주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을 초청하고 관련 책을 읽었다. 청라 올레길 프로젝트는 청라를 걷고 올레길을 만든다. 올레길의 이름을 붙이고 그 길에 얽힌 이야기를 만드는 활동이다. 5월부터 진행되며 7월 독서캠프, 8월 도시문화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도서관이 되고자 한다.

책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인연, 풍경넙쿨과 책마실

다름이다. 얼굴 생김새도 말씨도, 그리고 생각도 다 제각각이다. 오는 길이 달랐으며 가는 길도 다르다. 첫 만남이 생각난다. 쉬임이다. 첫 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책을 매개로 풍경넙쿨이란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 하나의 만남은 또 하나의 만남을 만들어 내며, 그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의 실마리가 된다.

인천초은고등학교 풍경넙쿨은 도서부의 이름이다. 매주 모여 독서토론을 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펼치는 또 하나의 주체이다. 사서교사, 사서가 없이 수업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병행하는 담당교사가 운영하는 인천초은고등학교 도서관에 도서부가 없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학교도서관에 그들이 있기에 많은 것을 함께할 수 있었다.

독서토론, 문화기행, 저자와의 대화, 독서캠프, 독서문화 프로젝트 등 그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학교도서관이 학생들로 인해 더 이상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인천초은고등학교 도서관은 그 길에 튼실한 길 친구가 되어 줄 것이다.



내 인생의 멘토를 만나다(장항준 감독)



저자와의 대화(이슬람의 저자 이희수)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파주독서문화 기행



도서관과 함께 하는 서울문화기행



김유정 문학촌 문화기행



내 인생의 멘토를 만나다(송용진)

꿈 찾는 책임기 : 진로탐색 도서관 활용수업의 과정과 내용

-김승희 (창동고등학교 사서교사)

이제 막 두 번째 학교에서 6년차 사서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업 경험과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서교사인 제가 '진로'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과 4시간동안 진행한 '꿈 찾는 책임기' 수업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학교에 진로진학상담선생님(이하 진로)이 배치된 첫 해였습니다.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으로 '진로' 시간이 편성되었고, 별도의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진로선생님께서 다양한 내용으로 수업 시간을 진행하시던 중 진로정보탐색을 위한 도서관 협력수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12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총 4차시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준비의 첫 단계는 진로직업 관련 도서목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하기전부터 희망하는 학급에 '꿈 찾는 책임기' 라는 이름으로 진로관련 도서목록을 만들어주었던 자료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기 사서선생님들과 함께 진로에 관한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모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심차게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진로관련 도서목록을 진로탐색활동 '책 메뉴판' 이라고 부르며 이 수업 종료 후에도 활발히 이용했습니다.

수업 오리엔테이션(1차시)

왜 진로정보 탐색이 필요한지, 어떤 종류의 진로직업 정보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정보를 찾는 방법과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정보는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결과물로 정리할지 설명하고, 도서관에 있는 진로직업 관련 도서목록(책 메뉴판)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진로독서활동(2, 3차시)

1차시에 책 메뉴판을 보고 아이들이 직접 읽고 싶은 진로관련도서를 선정하였습니다. 소장도서에 한계가 있어 3순위 정도로 희망도서를 고르게 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해 반별로 어떤 학생이 어떤 직업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읽기로 한 책은 무엇인지 2차시가 시작되기 전에 섬세한(?) 작업을 하여 반별 목록을 만들고, 이 책들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일반 대출은 하지 않고 책바구니(혹은 특정 서가에 비치)에 책을 정리해둡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리라, 아직은 뚜렷한 희망진로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에 조금씩 관심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진로탐색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려주는 책,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을 추천해주면 좋습니다.

<직업에 관한 고찰>
『성적은 짧고 직업은 길다』, 『준비가 알차면 직업이 즐겁다』(탁석산, 창비)

<직업 안내서>
『내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멋진 직업』, 『스무살 이제 직업을 생각할 나이』, 『10살에 꼭 만나야 할 100명의 직업인』 등등

<여러 인물이야기 모음>
『젊은 그대 잠깨어 오라(김창남, 숨비소리)』, 『청춘사용설명서(박근영, 웅진씽크빅)』, 『행복한 밥벌이(홍희선 외, 넥서스북)』, 『아뽤싸 난 성공하고 말았다(김여준, 학이시습)』, 『스무살의 롤모델(고은옥 외, 멘토르)』, 『이공계에 빠져 봅시다(한국과학문화재단)』

막상 책을 읽다보면 흥미나 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시간 동안 개별적으로 책을 찾는 법을 알려주고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책을 읽으며 진로에 관한 어떤 정보를 찾아내면 좋을지 안내하는 학습지와 기록양식을 함께 나누어주었습니다.

진로탐색보고서 쓰기과 수업 마무리(4차시)

2시간동안 각자의 진로에 관련한 책을 읽은 후 정리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책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와 아이들의 생각을 담은 진로탐색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예시문을 함께 주어 쉽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시간인지라 별다른 평가 단계는 없지만, 4차시 동안의 학습지와 최종 진로탐색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한 학생은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간단한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활동란에 아래와 같이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학생별로 책 이름만 다르게 써주면 되겠죠?

<사진작가를 꿈꾸는 학생의 기록 예시문>

진로탐색을 위한 활동으로 <오동명의 보도사진 강의>라는 책을 읽고 진로탐색보고서를 작성함.

'꿈 찾는 책임기' 수업 평가

수업이 모두 끝난 후 설문지를 통해 학생들의 평가를 받은 결과, 책 읽는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길 원하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책이 더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생이 원하는 특정직업(스포츠 마케팅, 긴급구조요원)만을 다루는 책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배포하는 '미래의 직업세계(직업편, 학과편)' 등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수업은 학교 교육과정에 '진로' 시간이 편성되어 있고, 해당 학교에서 진로직업관련도서를 충분히 마련해둔다면 쉽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개별 학교 상황에 따라 책 읽는 시간을 조정하여 짧게 한 달 정도로 진행할 수도 있고, 관련도서 여러 권을 읽어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한 학년의 전 학급을(12학급) 무려 4차시에 걸쳐서 수업해보고, 제가 준비한 내용에 따라 아이들이 책을 고르고 읽고 꼬적거리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3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책을 팔라주고, 반별로 책을 준비해두고, 학습지를 확인해주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해왔던 도서관의 다른 업무보다도 훨씬 기분 좋고 보람있는 분주함있고 수업에 대한 조금의 가능성을 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에 대해 늘 고민하며 이 상징적인 도서관 활용수업을 꿈꾸지만, 학교 현실의 벽은 여전히 저의 역량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평범한 사서교사인 저는 시도와 실패를 거듭하며 어떤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앞으로도 오래 고민할 것 같습니다. 제 사례가 여러 선생님들에게 아주 작은 아이디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정보 탐색 독서활동 학습지

* 직업별 진로관련 도서목록	* 직업별 진로관련 도서목록
<p>교사</p> <p>1. 나의 꿈과 관련된 직업(100명 이상)을 찾아보기</p> <p>2. 나의 꿈과 관련된 직업(100명 이상)을 찾아보기</p> <p>3. 나의 꿈과 관련된 직업(100명 이상)을 찾아보기</p> <p>4. 나의 꿈과 관련된 직업(100명 이상)을 찾아보기</p> <p>5. 나의 꿈과 관련된 직업(100명 이상)을 찾아보기</p>	<p>학생</p> <p>1. 나의 꿈과 관련된 직업(100명 이상)을 찾아보기</p> <p>2. 나의 꿈과 관련된 직업(100명 이상)을 찾아보기</p> <p>3. 나의 꿈과 관련된 직업(100명 이상)을 찾아보기</p> <p>4. 나의 꿈과 관련된 직업(100명 이상)을 찾아보기</p> <p>5. 나의 꿈과 관련된 직업(100명 이상)을 찾아보기</p>

진로관련 도서목록 '책 메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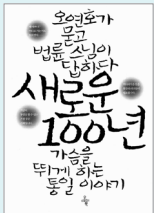
1. 직업명	2. 직업 설명	3. 추천 도서
<p>1. 직업명</p> <p>2. 직업 설명</p> <p>3. 추천 도서</p>	<p>1. 직업명</p> <p>2. 직업 설명</p> <p>3. 추천 도서</p>	<p>1. 직업명</p> <p>2. 직업 설명</p> <p>3. 추천 도서</p>

숙명여고 교사 독서동호회 “맛있는 책읽기” 추천도서 12선



열네 살 농부 되어보기
이완주, 정대이, 박원만 공저 / 김선호 그림 / 들녘 / 2013

‘너는 학원 가니? 나는 텃밭 간다~!’ 학교에 텃밭이 있다면 어떨까? 내가 뿌린 씨앗으로 기른 채소를 입안에 넣었을 때 느낌은 남다른 것 같다. 도시화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은 흙을 느껴볼 기회가 적다. 저자는 흙속에 많은 생명들이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지 알게 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텃밭을 가꾸고 싶은 청소년 농부, 교사를 위한 텃밭 농사 가이드이다. 학교 안의 소중한 힐링 텃밭을 꿈꾸는 이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강소연 사회 선생님)



새로운 100년 : 오연호가 묻고 법륜이 답하다
법륜, 오연호 공저 / 오마이북 / 2012

‘즉문즉설’을 통해 법륜스님과 오연호기자가 나눈 심층대담을 기록한 책이다. 오연호가 묻고 법륜스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2012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전망하고 있다.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더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하면서 ‘다다른 곳에 통일’이 있다.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나아가갈 갈피를 잡는 것이 어떨까. 특히 청소년들이 역사의를 갖고 공동체에 기여할 개인으로 서는 데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다. (전은숙 국어 선생님)



커피밭 사람들
임수진 지음 / 그린비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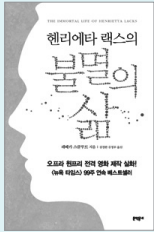
세계 4대 커피 생산지인 코스타리카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저자가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를 하며 만난 사람들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공개된다. 커피 열매를 평생 따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열악한 노동 조건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하지만 적게 가지고도 행복한 그들은 소유의 양과 행복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먹는 커피는 어떤 사람들이 땀을 흘려, 그들은 노동의 댓가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혀 거대담론으로 알 수 없었던 세계화의 이면을 직시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예주영 사서 선생님)



비블리아 고서당 사건수첩
미카미 엔 지음 / 최고은 옮김 / D&C BOOKS / 2013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낡은 책에는 내용뿐 아니라 책 자체에도 이야기가 존재한다.” 오래된 목조건물 미담이문 너머로 낡은 책이 쌓여 있는 비블리아 고서당. 현 책을 사랑하는 서점주인은 수줍음이 많아 사람들과의 대화를 힘들어한다. 하지만 책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해결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책에 담긴 이야기와 얽힌 인연을 통해 해박한 지식으로 풀어낸다. 책 속 인물들

은 그들만의 사연이 담긴 책을 가지고 있었다. 옛 기억을 더듬어 나와 인연이 있는,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찾아보자. (숙명여중 이정현 사서 선생님)



헨리에타 렉스의 불멸의 삶
레베카 스크루트 지음 / 김정한, 김정부 옮김 / 문학동네 / 2012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가공되어 보내지는 지금,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 축적량은 가히 방대하다. 많은 나라들이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생명과학 연구에 투자를 하고, 최근에는 필수 사항으로 ‘생명윤리’가 함께 강조되고 있다. 소수의 희생, 다수의 이득’은 정답이 없는 논제이다. 앞으로 생명과학 분야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고민해 볼 기회를 충분히 갖고, 자신의 잣대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정보라 생명과학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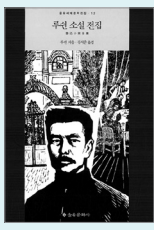
불편해도 괜찮아
김두식 지음 / 창비 / 2011

제목부터 호기심을 유발한다. 저자는 편견을 깨고 다름을 인정하는 불편함을 가지는 것이 인권감수성을 가지는 첫걸음이자 핵심이라고 말한다. 인권 이야기를 읽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있으며, 청소년,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무언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게 하는 좋은 책이다. 편견 없이 자라야 할 청소년들에게 꼭 권하고 싶다. (이정희 가정 선생님)



빗물과 당신
한무영, 강창래 공저 / 알마 / 2010

비를 맞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빗물보다 지하수가 더 깨끗하다? 이 책은 우리가 믿어 왔던 빗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숨겨진 진실을 탐구한다. 과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산성비의 폐해’가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강조하는 내용이라면 학생들은 믿을 수 있을까. 빗물연구소장 한무영 교수님이 알려주는 소중한 빗물 이야기를 통해 하천 중심의 수자원 이용 패러다임을 변화시켜보자. 순수한 증류수인 빗물이 메탈라가는 지구를 살릴 수 있다. (한은주 지리 선생님)



루쉰 소설 전집
루쉰 지음 / 김시준 옮김 / 을유문화사 / 2008

아편전쟁과 5·4운동으로 이어지는 근대화 태동기에 의학을 배우고자 일본 유학길에 나섰던 루쉰은 몸의 치료보다 마음의 치료가 더욱 시급함을 깨닫고 중국으로 돌아와 소설 <광인일기>를 발표한다.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했던 민족주의자 루쉰은 자신의 사상과 자전적 이야기가 녹아있는 소설집을 차례로 내놓

으며 민족의 정신 계몽에 힘썼다. 루쉰의 작품들이 모두 실린 책으로 근대화 시기 중국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구양미 중국어 선생님)



제노사이드
다카노 가즈아키 지음 / 김수영 옮김 / 황금가지 / 2012

<13계단>으로 유명한 저자의 장편소설이다. 현 인류를 뛰어넘는 지력을 가진 신인류의 등장으로 현존 인류의 생존권 위협과 이를 둘러싼 음모를 추리 스릴러와 SF 기법으로 그려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를 해결하려는 약학 대학원생 고가 겐토와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 콩고로 잠입한 용병 조너신 예거의 운명을 통해 드러나는 강대국의 추악한 음모가 흥미진진하다. 그동안 행했던 대량학살과 인류의 종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책이다. (서수정 수학 선생님)



그림에, 마음을 놓다
이주는 지음 / 엘리스 / 2008

힐링이 대세로 떠오른다는 것은 치유를 원하는 지친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정하게 안아주는 심리치유에세이’ 한 줄 소개문처럼 그림을 보며 쉬이 읽어내려 가면서 힐링할 수 있는 책이다. 서툰 사랑, 사람들과의 힘겨운 관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로 다가서는 그림들과 솔직한 에세이가 담겨있다. ‘괜찮은책’하라 고단한 사람들이 잠시 아프고 힘든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책이다. (김은지 영어 선생님)



생각한다는 것
고병권 지음 / 정문주, 정지혜 그림 / 너머학교 / 2010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일상의 관성에서 벗어나 생각하기 시작한다. 생각한다는 것은 익숙하던 대상을 낯설게 여기는 데서 시작한다. 그것은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방법이다. 피아노 연주가가 예상치 못한 줄의 끊어짐 앞에서 연주를 중단할 수 없듯이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모든 이에게 철학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예술임을 이 책은 가르쳐준다. (정우석 수학 선생님)



철학 카페에서 시 읽기
김용규 지음 / 웅진 지식하우스 / 2011

<철학 카페에서 문학읽기>에 이은 또 하나의 이야기 책. 철학자인 저자가 작품 속에 녹아 있는 철학적인 내용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 놓은 이야기보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철학과 시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자 고통인 ‘사랑’에 대한 문학가들의 고뇌의 철학을 따뜻한 시선으로 쉽게 설명해 준다. 누가 읽어도 공감할 수 있는 쉽고도 깨알같이 재미있는 ‘철학과 시 사용 설명서’랄까? (배은선 영어 선생님)

내가 권하는 책



윤미네 집

전몽각 지음 / 포토넷
208쪽 / 2010년 1월

2010년 나는 참으로 딱딱한 계절을 보내고 있었다. 작열하는 태양에 땀으로 얼룩졌고, 흐르는 눈물로 마음이 얼룩졌던 그 해 여름!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칠 즈음 독서의 계절 가을이 왔음을 느꼈다. 계속 정신을 놓고 살 수가 없어 깊게 호흡한 후 서점에 가서 만난 책이 바로 “윤미네 집”이다. 아마추어 사진작가였던 故전몽각 선생의 가족의 소박한 일상들을 사진에 담아놓은 사진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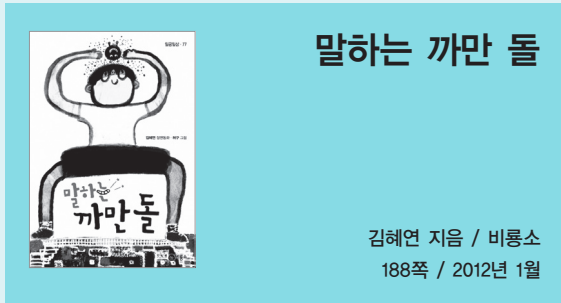
사진집은 큰 딸 윤미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다. 눈도 뜨지 못한 채 포대기에 싸여 사진 속에 담긴 갓난아기의 모습 윤미는 동생들과 뒹굴며 놀고, 책을 읽으며 성장하고,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졸업을 하고 평생 반려자를 만나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사진으로 이 책은 마무리가 된다.

꾸며지지 않은 사진 속에서 윤미네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재잘거림이 들리는 듯 했다. 멋진 풍경과 외국의 고풍스런 풍경 사진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겠다. 이 사진집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 마다 아내와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남편이자,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보통 글이나 음악으로 마음의 위안과 따뜻함을 느끼는 감동을 사진으로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윤미의 성장과정 외에 “마이 와이프” 편은 부인의 처녀 적 모습, 창가에 앉은 중년, 그리고 손자와 춤추는 할머니까지 아내 삶의 사이클을 담은 11컷의 사진 또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사진을 찍는 이의 진심과 사랑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감정을 많은 사람이 느꼈는지 1990년대 처음으로 출판되었다가 절판된 뒤 20년 후인 2010년에 복간된 책이다.

기록의 지속성은 시간이력에 따라 점차 그 농도가 깊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지니는 의미는 더 크다고 생각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좋은 사진이란 자신의 눈이다.” 눈과 기억으로 찰나의 순간을 기억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소중한 순간들을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는지도 모른다.

(부천원미초등학교 사서 박혜리)



말하는 까만 돌

김혜연 지음 / 비룡소
188쪽 / 2012년 1월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의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들은 예전보다 많은 고민을 안고 산다. 성적, 친구 관계, 그리고 나날이 기능이 새로워지는 스마트폰으로 고민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너무 말라서 무섭다’ ‘핸드폰이 낡은 기종이다’ ‘우리와 의견이 다르다’ 등 어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 친구관계를 맺으면서 겪는 고민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으로 관계가 확장되어 선배가 개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고민에 불안감이 더해져서 힘들어한다.

초등학교 3학년인 지호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다. 키가 작고 아토피를 앓으며 수줍음까지 많은 지호는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맞설 용기가 없어 매번 당하기만 한다. 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사고 후 입을 다물어 버리고 회사까지 그만둔다. 그래서 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아빠와 함께 생활을 한다. 아빠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상태라 지호의 마음을 보듬어 줄 여유가 없었던 게다.

어느 날 지호는 설리 아줌마의 까만 돌을 가지게 되고 지호와 아빠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를 겪는다. 지호는 까만 돌에게 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털어놓는다. 까만 돌은 지호와 아빠에게 문제 해결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역할만 한다. 까만 돌이 대꾸하지 않을 때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는다. 아이들에게 이런 까만 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별 볼 일 없는 돌 하나지만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왕따에 대해 비판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실적인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까만 돌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건강하게 해결하는 법을 보여준다. 또래 친구로 인해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마음 아픈 친구들이 마음껏 자기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고,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에게 도움이 말보다 묵묵히 그 자리에서 들어주는 까만 돌. 까만 돌이야말로 진정한 명창을 만드는 귀명창이 아닐까?

(서울 백석초등학교 학부모 허지연)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어

다니엘 스테판스키 지음
헤이즐 미첼 그림 / 전광철 옮김
그레이야기 / 48쪽 / 2013년 3월

자폐장애(Autistic Disorder)라는 낯선 용어를 찾아보니 사회적 고립, 정인지체, 언어적 결함, 행동 장애라는 어쩐지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들 따라온다.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어』 저자인 자폐소년 다니엘 스테판스키는 자폐증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오티스틱(autistic)이 아티스틱(artistic)과 발음이 비슷해서 자신이 아주 예술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건조한 검색엔진보다 훨씬 절묘하게 멋진 해석이다. ‘자폐증’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니엘은 그 단어가 다른 단어들보다 쉽고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고, 자신에게 자폐증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폐아’라는 말을 들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 아니다. 재주가 많고, 웃기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창의적이고, 호기심 많고, 재능 있는 골프 선수이고, 이것저것 만들고 고치는 일도 잘하는 아이. 이 모든 것이 바로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단순하고 명쾌한 문장으로 자신에 관해, 자신과 같은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에 관해 설명해 주며 이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거리낌 없이 어울리기를 바란다고 소박하게 말한다.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논리 정연한 설명보다 훨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담백한 문장 속에서 그간 아이가 겪었을 편견과 오해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했다. 좀 별나 보이긴 하지만 같은 사람이라 어울리고 싶으니 무시하지 말고 인사해 주기를,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지만 참을성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기를, 돌발행동을 할 때는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분명한 단어로 말해 주기를, 나는 자폐증이 있지만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고 너희처럼 꿈과 목표가 있으니 나를 동정하지는 말기를 다니엘은 당당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전달하며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한다. 자폐아 또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고 독립적이고 전인적인 하나의 인격체임을 우리는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남 영암초등학교 교사 한지연)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부모

지금 뭐하십니까?

김옥주 (어린이책시민연대 광진지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우연히 보게 된 신입 회원 모집 공지가 나를 이곳 어린이책시민연대로 이끌었다. 어느덧 중년 회원이 되었고, 큰 아이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벌써 여러 해가 흘러 갔기에 내가 뭐하고 있었나?, 지금까지 뭐했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에까지 이른다.

우리 동네 도서관은 거리상으로는 가까웠지만 교통편이 불편했다. 구청이나 도서관에 불편 사항을 이야기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어지진 않았다. 그러면서 난 내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책이 있는 도서관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었다. 나 또한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책을 만질 수 있고 책 향기에 끌려 드나들 수 있는 아늑한 공간과 함께 소통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을 꿈꾸었다. 꾸준히 참여했던 책읽기 모임은 나를 성장하게 했고, 내 안의 나를 발견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 밑거름은 마을공동체 활동의 씨앗을 싹트게 할 만큼 또 다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내가 꿈꾸던 꿈이 이렇게 이루어져 갈수 있음에 감사하며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왜일까? 책을 읽는 이들이 많아지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도 같았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는 활동이 필요했다. 또 독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책읽기 사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고민도 했었다. 그래서 책읽어주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여전히 내가 사는 곳에는 PC방과 노래방, 학원들과 유흥업소들이 넘쳐나고 있

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고 찾는 것 때문인지 동네에서 쉽게 커피전문점을 만날 수 있다.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은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며 찾는 것들이다. 그것이 우리를 둘러싼 문화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어떤 문화가 펼쳐져 있을까?

난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놀다가도 책을 만났으면 좋겠고 쉴 때도 책을 쳐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나가다 심심하면 드나들 수 있는 책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곳곳에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꿈꾸는 환경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회가 하는 일들이 내겐 더 소중하고 더 알려야 할 일들이 되었다. 아직도 나는 책 읽는 마을에서 책이야기를 나누며 자기 생각과 다른 이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우리네 모습을 꿈꾼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사서

도서관에서의 작은 음악회

김선영(서울 신계초등학교 사서)

학교도서관 사서로 지내다 보면 힘든 점도 있지만, 운영자로서의 매력은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건이 쉽지 않지만 시간과 힘을 조금 들여 내가 의도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처음에 도서관이 책을 읽는 장소만이 아니라 문화의 공간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한 달에 한번 영화 상영을 시작하였다. 그 다음으로 출판사에서 대역해서 원화 전시회를 열었다. 책속의 그림들이 커다란 액자 속 그

림으로 전시되자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또 음악회를 여는 공공도서관의 안내문을 보며, 음악과 관련된 것을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우연히 첼로를 연습하는 한 선생님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도서관에서 동요를 한국만 연주 해 달라는 몇 번의 부탁 끝에 들려주기로 하였다. 내친 김에 작은 음악회를 열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전체 선생님들 중에 연주가 가능한 분들을 찾아보았다. 기타, 플룻, 피아노를 연주 해주실 분들이 선택 나서 주셨다.

연주회 날 아이들과 학부모님들로 공연장은 꽉 찼다. 첫 순서는 학도넷 연수에서 배운 백창우 선생님의 '꽃은 참 예쁘다' 라는 노래를 다 같이 배워서 불러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기타연주와 2학년 아이들의 합창으로 '아빠와 크레파스', '겨울아이', '거위의 꿈' 이 연주되었다. 다음으로 플룻의 '참 좋은 말',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공연의 흥을 돋우었다. '등대지기', '하늘나라동화', '에텔바이스', '개똥벌레' 가 첼로와 색소폰으로 연주되었다. 아이들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악기 소리에 귀를 세우고 듣고 악기 연주를 신기한 듯 바라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전체가 어린이사서들의 안내에 따라 '아기엄소'를 박수놀이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진 후 음악회는 마무리 되었다. 끝나고 돌아가는 아이들의 흥얼거리는 노랫소리에서 선생님들의 피로도 씻기는 듯 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학교 도서관은 운영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환경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무언가 하고자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었다. 물론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주변의 조력자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찾아보면 의외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학교도서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학교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



쉽게 미리 보는 대학 전공 탐험! —《경향신문》

비룡소
021515-2000(내선1)
www.bir.co.kr

주니어 대학 시리즈

박지영 외 글 · 이유일 외 그림 | 전 5권 | 각 권 12,000원 | 12세 이상 | 계속 출간됩니다.

- 남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심리학 박지영 글 · 이유일 그림
- 인류학자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문화 인류학 김찬호 글 · 이강훈 그림
-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다고? 신문 방송학 김창룡 글 · 아메바페쉬 그림
- 로빈슨 크루소가 건축가라고? 건축학 김홍기 글 · 홍승우 그림
- 신약 개발의 비밀을 알고 싶니? 약학 김선 글 · 이경석 그림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교사

도서실과 함께 한 10년

이근자 (서울등명초등학교 교사)

2002년 처음 얼떨결에 맡은 도서실 업무가 지난 10년 동안 나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 때 유치원생이었던 딸아이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돼버렸다. 시작할 때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독서 교육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업무에 매달리다가 돌볼 여유는 없었고, 늦게 까지 일을 하면서 혼자 방치할 때가 많았다. 오히려 명예교사 어머니들이 자식 돌보지 못하면 후회한다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 조언도 해주셨다. 다행히 내 아이는 학교도서관에서 놀면서 책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여전히 책을 좋아하고 즐겨 읽는다.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는 도서실이라 할 것도 없이 각 학년으로 돌리는 복본 도서들로 채워져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화여대 부속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조언을 듣고 독서교육과 도서관에 관계된 책을 읽으면서 연구를 하고 도서관과 서점을 수시로 드나들었다.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도서관을 제공해주려고 노력했고 반 아이들과도 독서 활동을 하며 교직 생활을 지내왔다. 그 동안 일시적이거나 지원되는 사서 선생님들이 계셔서 도서실 업무가 수월해졌다. 일을 시작하면서 학교마다 사서 교사가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학교마다 불안정한 계약직 사서 선생님들이 대부분인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다행히 현재 근무하는 학교는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정 학교라서 계약직 사서 선생님이지만 지속적으로 계셔서 도서실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가 참 좋다.

작년에 가족 독서 캠프를 진행하려고 자료를 찾는 와중에 학도넷에 대해 알게 되었다. 처음 참여했던 연수가 이성희 선생님 강의였다. 일요일도 반납하고 오신 선생님들이라 그런지 참석하신 선생님들의 열의는 대단했다. 심지어 강의를 듣기 위해 광주에서 포항에서 기차 타고 오신 사서 선생님들도 계셔서 놀라웠다. 연수를 들으면서 정말 새로웠고 배울 점이 많았다. 그 날로 바로 학도넷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리고 학도넷 연수가 있으면 다른 일을 제치고 참여하는데 그때마다 연수 내용이 참 좋다. 연수를 듣고 학교에 가서 하나씩 적용해보면 아이들도 매우 좋아하고 나 역시도 새로운 기쁨을 얻는다. 올해는 이성희 선생님에게 배운 도서관 추적놀이를 가족독서 캠프 프로그램으로 넣어 한층 더 유익한 가족독서 캠프를 진행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출판

아무도 소외하지 않는 행사

김연일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회 회장)

출판 업계엔 행사가 무척 많다. 매년 열리는 서울 국제도서전, 서울북페스티벌, 와우북페스티벌, 파주어린이책잔치, 파주북소리 등은 출판사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행사다. 이렇듯 출판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만한 행사 외에도 수시로 열리는 행사 또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책과 관련된 행사가 늘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출판사 입장에서 서점을 통해야만 만날 수 있던 독자를 직접 만나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책에 대한 평가를 독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으니 책을 기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자 입장에서 책을 만든 사람이

나 책을 쓴 사람들과 읽었던 책, 읽고 싶은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조금씩 책에 참여하고 있다는 기쁨과 보람이 생길 것이다. 행사가 늘어난다는 건 출판사나 저자에겐 기회가 독자에겐 보람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행사에 직접 참여해보면 출판사와 독자가 가장 원하는 게 혹시 '할인 판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 할인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행사에 참여한 출판사는 보통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 판매를 한다. 출판사는 도매와 소매라는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싸게 팔수 있다고 말한다. 독자는 그런 장점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 최근에 행사를 찾은 어떤 독자는 가격을 미리 검색한 후 그보다 싸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구매했다. 싼 가격이 행사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며칠 전 대학로에 있는 지역 서점 두 곳을 찾았다. 출판사 영업자가 서점에 가는 건 일상적인 일이라 특별할 것 없지만 그날은 좀 달랐다. 인문사회과학출판인 협의회가 후원하는 한 행사에서 하기로 한 20% 할인 판매를 하지 말라는 서점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행사는 토론, 강연, 공연 등 독자와 저자 그리고 출판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 본연의 가치를 중요하기 여기며 기획을 했지만 '할인 판매'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결국 고민 끝에 할인을 하지 않고 정가로 판매하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 유통 단계를 줄여서 할인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역 서점 입장에서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두 서점의 대표들은 구태여 말하지 않았다. 대신 한 명의 독자라도 단골이 되게 하려는 힘겨운 노력의 과정을 이야기했다. 생각이 짧았다.

행사는 분명 의미 있는 행위다. 그러나 그 안에서 소외 받는 사람(서점)이 없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출판사와 독자가 만나는 공간 안에 지역 서점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가 늘어나길 희망한다.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우리의 이야기, 레디 액션!

텐텐 영화단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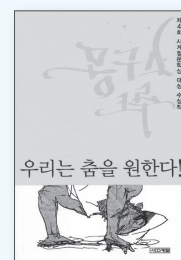


책장을 열면 크랭크 인부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까지, 학생이기를 당당히 거부한 개성만발 십대들의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가 펼쳐진다.

김혜정 장편소설 | 값 9,500원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나는 비보이 댄서!



'춤'을 매개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는 십대 비보이(B-boy)들의 이야기가 신나는 리듬을 타고 흐른다.

신여랑 장편소설

- ★ 제4회 세계철문학상 대상 수상작
- ★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 ★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추천도서
- ★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도서
- ★ 대한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도서

학도넷 소식

2013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학도넷 행사

- 2013년 3월 15일 소식지 봄호 발행(총권 29호)
- 2013년 4월 20일 4월 종일연수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
- 2013년 4월 21일 세미나 “우리 동화로 만드는 우리 교실 학급 문고”
- 2013년 5월 20일 책모임 공모 선정모임 발표
- 2013년 5월 25일 창립 9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신입회원 (2013년 3월~2013년 5월)

정회원 : 성현주

준회원 : 장유미 김미령 류호선 김양숙 이미정 오영실

웹회원 : 고숙희 김윤지 마민희 우다희 홍지연 쿠도마키 정은주 김남희 김미선 최미진 정희영 고춘례 박경혜 배민경 권정은 양은영 안병진 진호 기정은 해냄에듀 김윤주 권명희 장경순

회비 및 후원내역 (2013년 3월~2013년 5월)

정회원 회비

- 매월 5천원 : 신은미 주상태 신형란 김정운 김은영 선보배 백화현 이수연 윤소영 허지은 임행녀 김미숙 조선희 변영이 백연주 백경숙 송숙영 정수연 강영미 유서연 송혜영 신정화 정해선 허지연 송경영 임민욱 강복숙 박미영 이현애 김영신 정영화 성주영 김대경 유정원 박준섭 차진미 김하나 이찬미 정은희
- 매월 1만원 : 정수현 정지영 김진희 김종성 조의래 조은영 김경숙 박영옥 김순홍 이경자 문예원글로벌피아 이규향 허경림 오희애 이문숙 정진수 김옥위 김신희 권향미 박정해 강지영 박지연 김숙경 정영희 김승주 조길량 최선옥

· 매월 3만원 : 윤성옥(해피북 책모임)

정회원 연회비 : 김진희(관악)(12만) 이근자(6만) 정재연(6만)

준회원 회비

- 매월 : 장한솔(2천) 장버리(3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손은상(2천) 김민형(2천) 송간형(1천) 김송요(2천) 김송현(2천) 이재희(2천) 김경선(3천)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

인세후원 : 백화현 책오르키는 아이들 (251420원)

후원 : 사계절(100만) 비룡소(100만) 창비(55만) 박물관이야기(10만) 청소년출판협의회(10만) 백화현(10만) 이용훈(10만) 도정일(5만)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7가지 꿈의 씨앗, 재미있게 읽고 쉽게 바뀌는 공부법 알지 못하면 뒤떨어진다(성안당)/ 특종! 20세기 한국사 5, 태극기 다는 날, 아빠가 들려주는 송례문이야기(한솔수북)/ 바쁘고 바쁘다, 말하는 돌, 그 사과밭에 생긴 일,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고양이(청개구리)/ 창비아동문고 대표동화 35권(창비)/ 철학자와 늑대, 조선의 오케스트라 우주의 선율을 연주하다, 뭉툭새는 왜 모래밭에 그림을 그릴까(추수밭)/ 전쟁이야기 속에 숨은 과학을 찾아라, 숲속의 가게, 멋대로 맘대로 월로(찰리북)/ 산양들이 잘 잤니?, 옛이야기 들으러 미술관 갈까?, 권리아! 고마워!(웃는돌고래)/ 검은 후드티 소년(북멘토)/ 우리는 고시촌에 산다, 인간합격 데드라인(시공사)/ 도란도란 책모임(학교도서관저널)/ 학교에서 영화 찍자, 세상을 바꾼 맛(다른)/ 중학생 주의보(탐)/ 추사의 마지막 편지, 나를 닮고 싶은 너에게(위즈덤하우스)/ 책상 위로 올라간 정치, 왕따 실험 생중계(우리교육)/ 진리를 찾아가는 길 장자, 이익을 반대한 경세가 맹자, 양심을 밝히는 길 논어(살림)/ 세계 최초로 성홍열을 치료한 조선 의사 허준, 지구 바깥 세상 우주에는(다섯수레)/ 자폐가 된지 알려 줄게! 애크는 선장, 약속을 무찌르다(한울림스페셜)/ 송례문에서 사라진 여처구니(고래가숨쉬는도서관)/ 할아버지 손, 우리 농장을 지어요!(꿈고)/ 홀로 남은 호랑지빠귀(보리)/ 꿈꾸는 짐승들(사계절)/ 혹시 우리 엄마예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리 엄마(상상의힘)/ 안녕 아시아 친구야(휴먼어린이)/ 10대 세상을 디자인하다(소금창고)

소식지 보내주신 곳

개똥이네 놀이터(보리)/ 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 그림책 365, 2013 추천도서목록(학교도서관저널)/ 서울국제도서전 포스터, 초대권(대한출판문화협회)/ 쫓대있는 어린이 독서공책, 추천도서 포스터(어린이출판협의회)

***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학도넷 4월 종일연수 했습니다.

- 주제 :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
- 강사 : 김창섭 선생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전, 서울대 법학도서관 사서(현))
- 때 : 2013년 4월 20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 곳 : 서울대 규장각 강당, 서울대 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www.hakdo.net)

우리 동화로 만드는 우리 교실 학급문고 세미나 했습니다.

- 주제 : 우리 동화로 만드는 우리교실 학급문고
- 강사 : 조윤희 선생님 (어린이책 전문가) 이영근 선생님 (군포 양정초등학교 교사) 주한경 선생님 (남양주 덕소초등학교 교사)
- 때 : 2013년 4월 21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 곳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 공동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관저널
- 후원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창비

학도넷 책모임 공모 선정모임 발표 했습니다.

<심사평 : 책모임, 기적같은 이야기들>
2013 학도넷 책모임 사례공모에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보내주신 학교, 도서관, 가정, 개인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책모임은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던 어머님들을 그림책의 세계로, 고전문학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책모임은 책읽기에 머물지 않고, 책과 관련된 강연회, 문학기행, 저자 초청 문학 강좌로 폭넓은 책 문화를 누렸고 그동안 쌓인 내용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펼치고 계십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모임을 시작한 학부모들은 책모임으로 도서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서관도 책과 똑같은 애정으로 대하지요, 학생들과 함께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도서관의 구석구석을 살피지요.

아파트 안의 작은 도서관에서 책모임을 시작한 분들은 작은 도서관을 내 집처럼 생각합니다. 당연히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은 내 집에 온 손님이구요. 내 아이만 잘 키워서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내 아이의 친구, 그리고 그 아이의 친구 모두를 돌보는 것이지요. 책을 통해서요.

책을 사랑한 선생님은 말뚝꾸러기 아이들에게 별 대신 책을 주었습니다. 말뚝꾸러기들과 같은 아이들을 책 속에서 찾아내 서로 소통하고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모두 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책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책만 봤을 뿐인데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공모에 보내신 사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책모임 심사는 얼마나 오랫동안 자주 모였나, 책모임을 뛰어넘어 주변을 살피 재능기부로 이어지고 있는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지속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책모임 사례를 보내주신 학부모 책모임, 가족 책모임,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책모임, 이웃끼리의 책모임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책모임 공모 선정 모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모임에게 준 도서는 학교도서관저널이 후원했습니다.

◆ 으뜸상 : 1개 모임(상장 및 도서 50권)
· 맑은바라기와 도서도우미 (경기 이천 한내초등학교 학부모)

◆ 버금상 : 6개 모임(상장 및 도서 30권)
· 북앤맘 (김해 덕정초등학교 학부모)
· 사제동행, 마음을 담은 책 (인천 강화중학교 학생)
·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 (서울 고척초등학교 학부모)
· 책나래 꿈나래 (경기 군포 가정모임)
· 책다발 (경기 양주 새싹작은도서관)
· 해운나래 (어른모임)

◆ 나눔상 : 10개 모임(상장 및 도서 10권)
· 가인회 (경기 용인 신릉초등학교 학부모)
· 그린나래 독서동아리 (서울 강명중학교 학부모)
· 글빛혜움 (경남 김해 덕정초등학교 학생)
· 보물섬 (경기 부천 부명초등학교 학부모)
· 북새통 (인천 삼산도서관)
· 생각이 크는 나무 (경기 부천 약대초등학교 학부모)
· 시소 (경기 수원 동신초등학교 학부모)
· 시절인연 (어른모임)
· 책 읽어주는 행복한 엄마 (경기 광명 안서초등학교 학부모)
· 책마중 (서울 길꽃어린이도서관)
-발표순서는 모임이름 가나다 순입니다.

학도넷 창립9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했습니다.

- 주제 : 책모임으로 여는 행복한 세상
- 때 : 2013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 곳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후원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계절출판사, 비룡소출판사

학도넷 6월 “만남과 바람” 수원화성 갑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 이꿈이 : 이달호 선생님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 가는 날 : 2013년 6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모이는 곳 : 수원화성 행궁 앞
- 모이는 시간 : 오후 3시
- 참가비 : 20,000원 (강사로, 저녁값 포함)
- 준비물 : 편한 신발, 모자, 필기도구, 간식, 시원한 물

학도넷 7월 종일연수

- 주제 : 창의적인 기록과 사고의 도구인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서관에서 마인드맵 배우기
- 때 : 2013년 7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곳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여름방학 사서연수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예정입니다.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425301-01-301236 김경숙(학도넷)